

금융산업 동향 및 전망 : 은행업

신 보 성

금융투자산업실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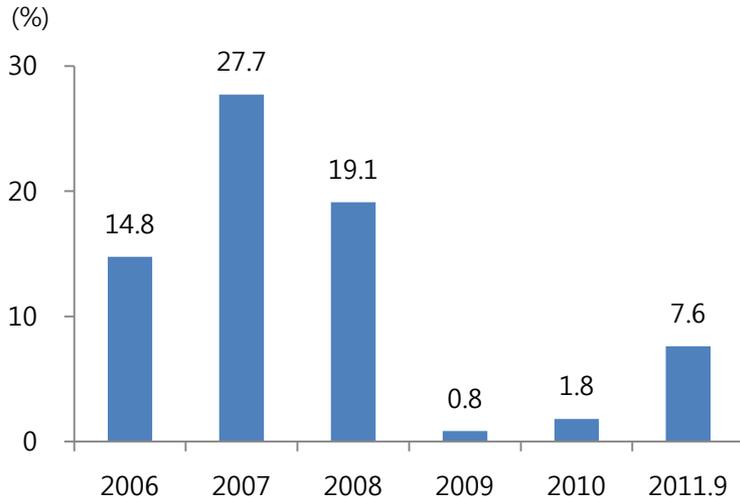


2012년 전망: 기업대출

❖ 2012년 기업대출은 지난해 대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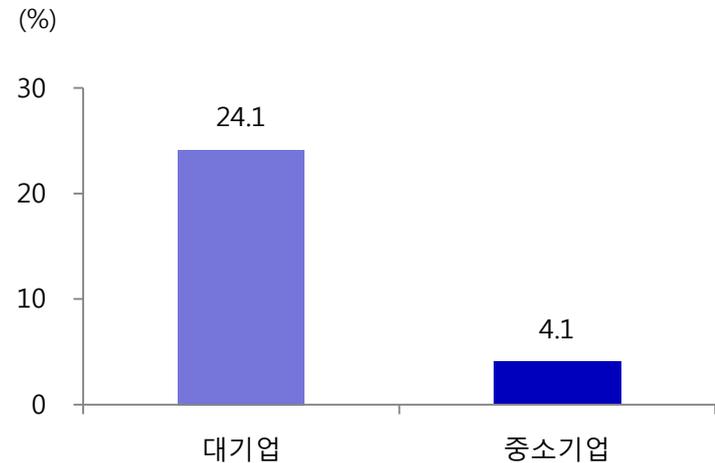
- 2011년 1~9월 동안 대기업대출은 24.1%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4.1% 증가하는데 그침
- 2012년 기업대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
 - 유럽에 이어 중국 등 인접국 성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보여, 국내 경기침체 가능성 증대
 - 경기둔화에 따른 신용위험 증대를 배경으로 기업대출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어려움

기업대출(전체기업) 증가율



자료: 금융감독원

기업규모별 대출증가율 (201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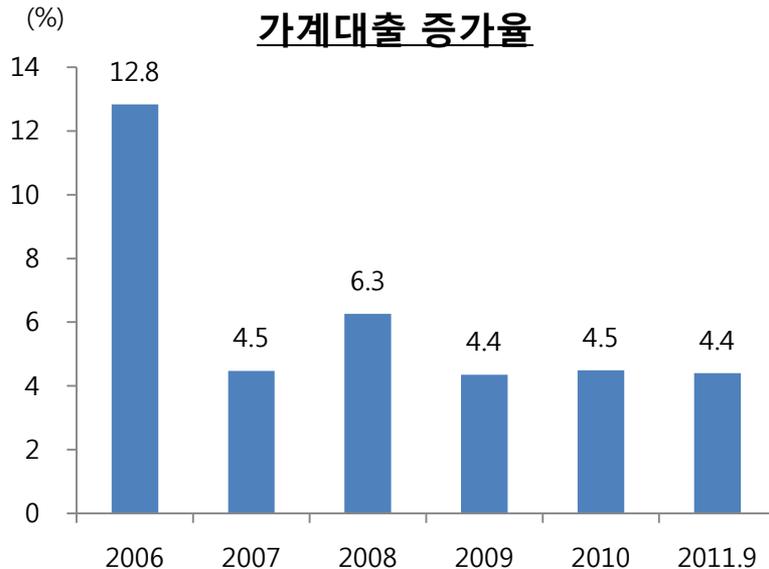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2012년 전망: 가계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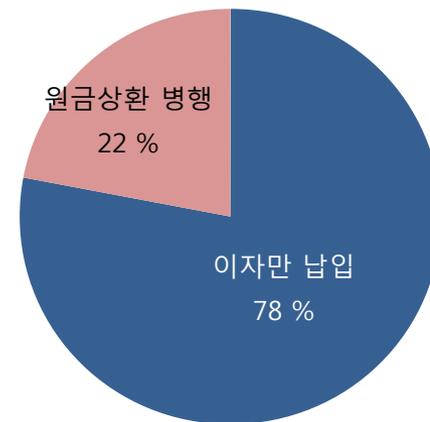
❖ 2012년 가계대출은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 대출자산의 질 악화 등을 배경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

- 2011년 1~9월 동안 가계대출은 4.4% 늘어나, 직전년도보다 소폭 높은 성장세 시현
- 2012년 가계대출은 지난해 대비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임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 지속 상승
 - 가계대출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둔화 전망
 -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78%는 이자만 납입하고 있어, 향후 경기둔화시 대출자산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 증대



자료: 금융감독원

주택담보대출 현황 (2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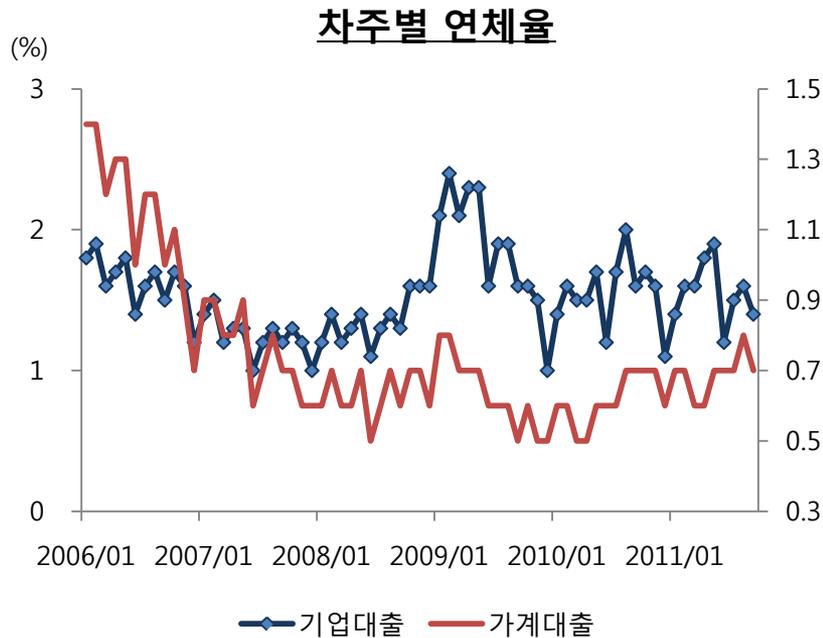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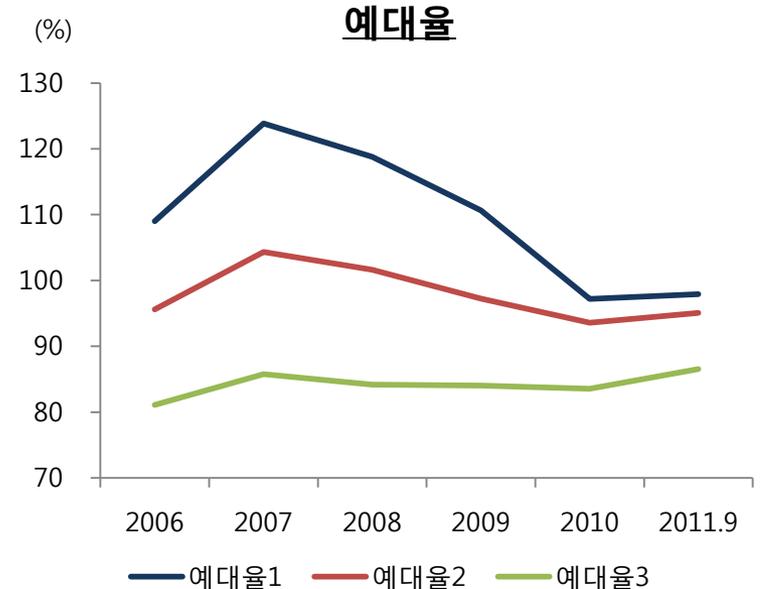
2012년 전망: 대출 (종합)

❖ 2012년 일반은행 대출은 지난해 대비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

- 경기하강으로 은행들이 적극적인 대출확대 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움
- 가계대출 성장률 규제 지속
- 가계/기업대출의 연체율 상승추세 전환
- 예대율 규제 지속



자료: 금융감독원



•예대율 1 =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예대율 2 =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CD)
 •예대율 3 =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CD+은행채)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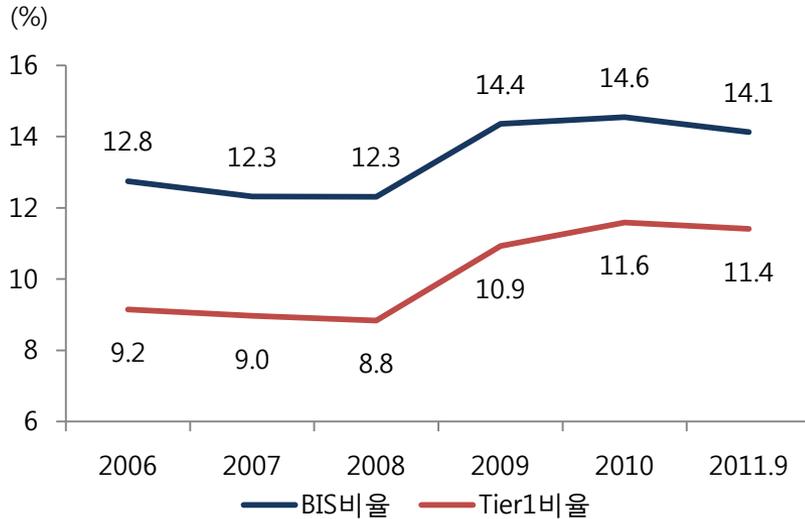
2012년 전망: 건전성



❖ 2012년 일반은행 건전성은 지난해보다 개선될 전망

- 일부 부실여신 증가에도 불구하고 규제강화를 배경으로 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예상
- 금융감독원, 은행권에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 제출 요청
 -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 바젤3 도입에 대비
 - 고배당 억제: 향후 경기하강에 대비

BIS자기자본비율 및 Tier1비율



자료: 금융감독원

일반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배당성향(%)

		2006	2007	2008	2009	2010
시중은행	국민은행	49.7	29.7	0.0	15.0	0.0
	우리은행	25.9	11.3	1.1	30.0	35.0
	신한은행	21.0	19.8	0.8	20.0	29.0
	하나은행	32.3	43.7	0.0	32.1	196.3
	외환은행	64.1	47.0	10.3	36.9	68.5
	SC은행	0.0	0.0	0.0	57.8	62.0
	씨티은행	20.2	19.6	0.0	0.0	31.8
지방은행	부산은행	33.5	30.9	10.7	12.2	14.0
	대구은행	31.0	30.4	12.7	12.4	17.4
	경남은행	20.0	0.0	0.0	30.0	35.0
	광주은행	20.0	0.0	0.0	30.0	35.0
	전북은행	11.4	8.9	11.2	5.0	22.7
	제주은행	0.0	0.0	0.0	0.0	0.0
	금융지주회사	하나	17.5	21.2	8.7	27.3
우리	23.8	9.9	-	7.9	16.9	
KB	-	-	-	14.6	46.6	
신한	21.4	25.9	12.1	32.8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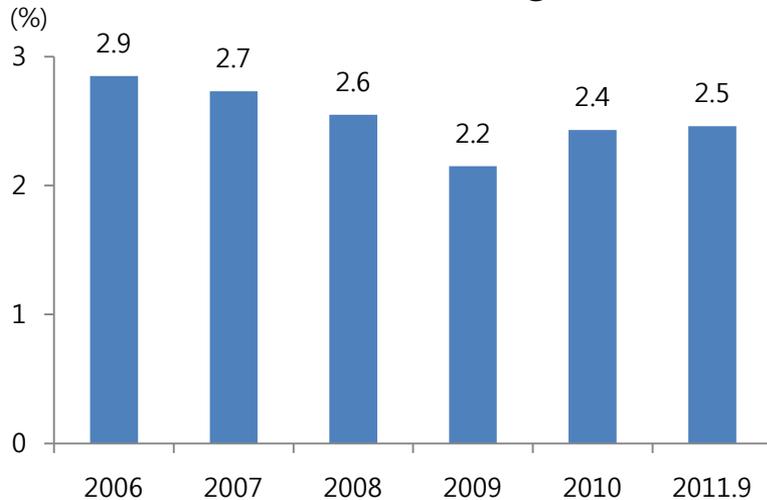
자료: 공시보고서 취합

2012년 전망: 수익성 (예대금리차)

❖ 2012년 은행 예대금리차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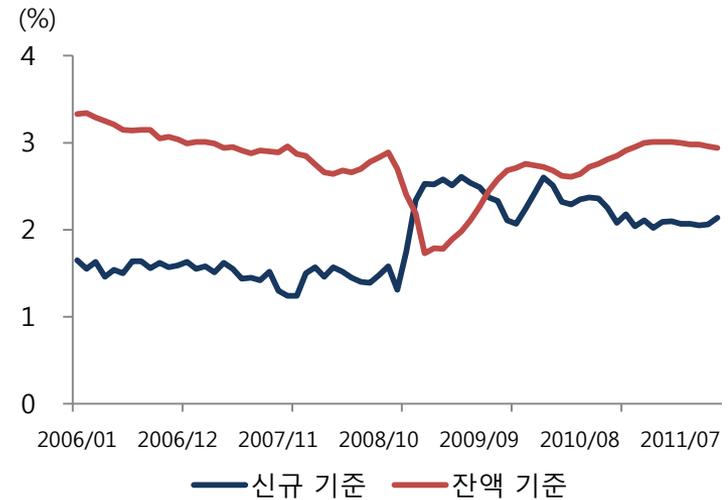
- 경기하강시 예대금리차 확대 경향
 - Flight to Quality: 예금금리 낮은 수준에서 유지 가능
 - 대출금리 하락속도 및 하락폭 크지 않음
 - 신용리스크 지속으로 가산금리 낮추기 어려움

Net Interest Margin



자료: 금융감독원

예대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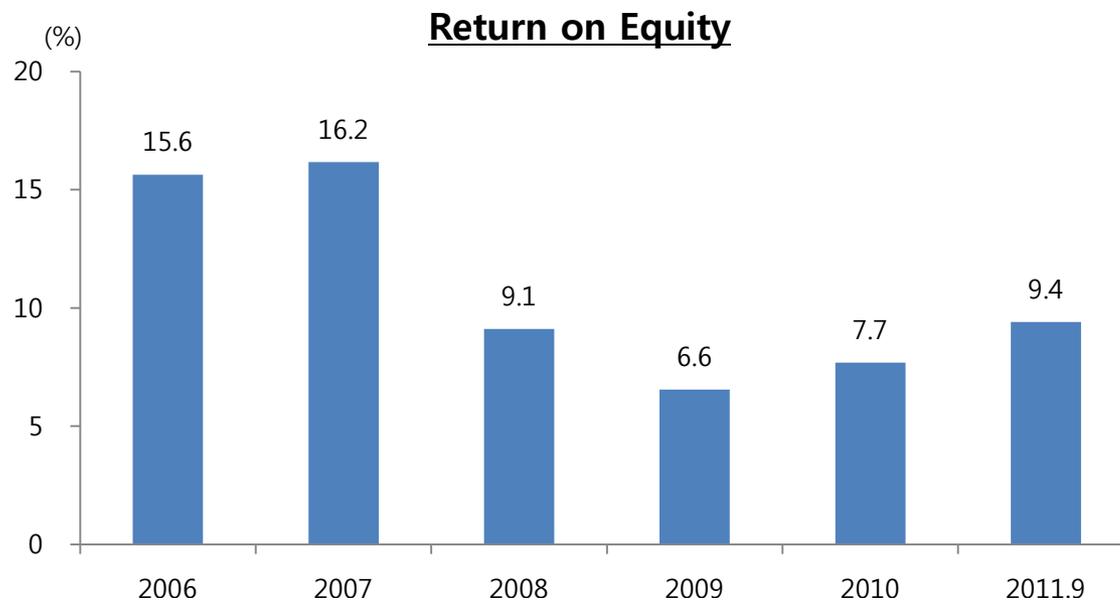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2012년 전망: 수익성 (ROE)

❖ 2012년 일반은행 수익성은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질 전망

- 2011년 1~9월 동안 은행 ROE는 9.4%로 2년 연속 상승세 시현
- 2012년의 경우 ROE는 소폭의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경기하강에 따른 부실여신 증가
 - 채권단 보유지분 매각효과 소멸
 - 수수료수익 감소: ATM,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압력
 - 자기자본규제 강화, 배당성향 감소



자료: 금융감독원

2012년 이슈: 은행업 환경 변화

❖ 향후 은행업의 성장성 둔화는 구조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 확대

- 국내 은행시장의 포화상태 근접
- 전세계적 규제 강화 흐름
 - 자기자본 규제
 - 고위험 업무 제한
 - 예대율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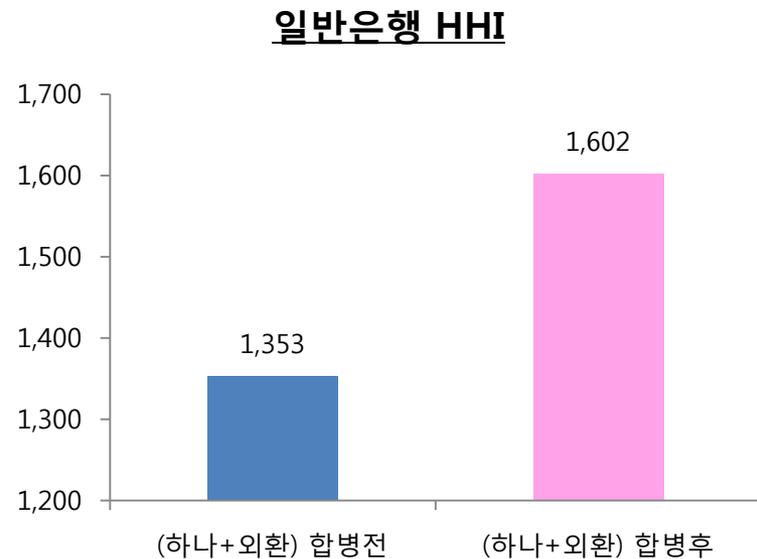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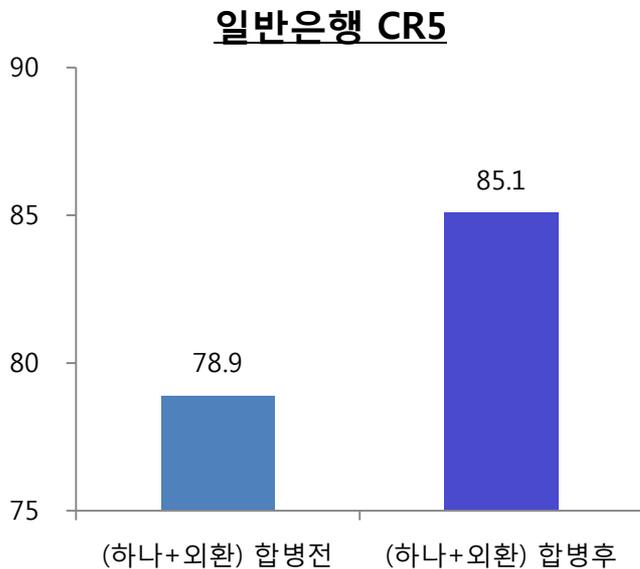
❖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

- 시장지배력 강화
- 해외진출
- 경영효율성 제고

2012년 이슈 (1): 시장구조 변화

❖ 성장성이 둔화될 경우, 시장지배력 증대를 통해 단위자산당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움직임 나타남

- 그러나 (하나+외환) 결합 이후 추가적인 합병은 어려울 전망
 - 하나, 외환 합병으로 은행권의 시장집중도는 큰 폭으로 상승
 - CR5: 78.9 → 85.1, HHI: 1,353 → 1,602
- 따라서 시장지배력에 기반한 수익성 제고도 쉽지 않을 전망



2012년 이슈 (2): 해외진출

❖ 경제성장률이 높은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모색 지속 전망

- 국내시장의 성장성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불가피
- 아시아 신흥시장이 갖는 장점
 - 경제성장률: OECD 국가의 5배
 - 인구증가율: OECD 국가의 3배
 - 실물과 금융 부문 간의 격차
 -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

2012년 은행권 해외진출 움직임

	현 황
우리	해외진출의 적기로 인식 - 동남아시아 2곳을 포함하여 해외 3곳에서 인수합병을 추진 중
하나	적극적인 해외 현지은행 인수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 - 미국 등 인수 은행 물색
신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시장으로 선정한 후 현지화 추구 - 인도네시아 현지은행 인수 추진 중

2012년 이슈 (3): 효율성 제고

- ❖ 추가적인 시장확대 및 자산단위당 수익성 제고가 어려울 경우,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움직임 발생
 - 국내 금융그룹의 경우, 전략, 인적/물적자원 등이 자회사별로 독자적으로 수립, 운용
 - 금융그룹이 갖는 시너지 효과 극히 미미

- ❖ 매트릭스 체제를 통해 그룹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는 움직임 시작
 - CIB (Corporate & Investment Banking),
 - 은행의 기업금융 부문과 증권사의 투자은행 부문을 한 임원이 총괄 지휘
 - 자산관리
 - 은행과 증권사의 자산관리 부문의 통합 운영
 - CIB, Wealth Mgt 부문의 매트릭스 체제가 성공할 경우, 자본시장 내 금융 회사 간 경쟁구도에 상당한 변화 발생 가능